

“세계 결핵의 날”에 되새겨 보는 로버트코호의 결핵균 발견과 그의의

편집부



미생물 과학의 창시자 “로버트 코호”박사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호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베를린 생리학회에서 당시 만연하던 여러 질병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앓아감으로써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진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여 세상에 발표했던 의학사상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었다.

의생물학이 인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각종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병마로부터 구해낸 것이다.

로버트 코호는 인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 가운데서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중요한 질병들의 병인(病因)도 발견했는데 그러한 업적은 그후 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사람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 질병들의 병인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실로 의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미생물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코호가 결핵균을 발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인 7명중 1명이 결핵으로 사망할 정

도였다고 논문에서 술화하고 있으며, 그것도 영아 사망의 1/3을 차지하고 있었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청장년층에서는 2명중 1명의 사망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하여 이를 박멸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준 코호 박사의 업적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짐작할 만한 것이다.

그는 결핵균을 발견한 이후 곧 결핵치료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으나 직업상의 여러가지 일로 꾸준히 연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1890년에 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0차 국제의학회에 투베르쿨린이 인체에 큰 악영향을 주지않고 결핵진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해 세인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불완전한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투베르쿨린은 지금도 결핵의 역학적 조사방법 또는 진단 목적으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1906년 노벨의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환자의 격리로 결핵의 전염을 방지하고, 환자의 배설물을 멸균시키고, 환자를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통계목적으로 모든 환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 많다.

또한 그의 결핵균 분리배양은 결핵화학요법제 개발의 길을 열어준 셈이기도 하다.

1901년에는 우형(牛形)결핵균과 인형(人形)결핵균을 분리시켰으며 결핵 뿐만 아니라 당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

종 질환의 연구에 착수하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김으로써 루이 파스퇴르와 함께 근대 세균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당시 가장 큰 보건문제인 결핵을 퇴치하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준 세균학자였다.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에서 결핵의 날 제정

이와 같이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수천년간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결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세계 민간 항결핵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은 이 날을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는 연도인 1982년에 "세계 결핵의 날"(Universal Tuberculosis Day)로 제정 공포하였다.

이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항결핵단체들은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된 매해 3월 24일에 결핵퇴치와 관련한 각종 사업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아직도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남아있는 결핵과의 투쟁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의 후원하에 대한결핵협회가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결핵사업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복십자대상을 수여하고 결핵과 관련한 기념강연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아직도 심각한 보건문제로 남아있는 결핵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卍